

제임스 브라운 컬렉션

# 소울 음악의 대부

흑인 대중 음악에 대한 백인의 관심을 끌어들이는 데 선구적인 역할을 한 제임스 브라운. 그는 흑인 청년들에게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흑인의 지위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사회 운동가이자 뮤지션이었다. 미국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친 그의 소장품 경매가 뉴욕에서 열렸다.

에디터 하유정 글 신수정(크리스티 코리아) 사진 이충규

자료 제공 크리스티 코리아(02-720-5414)



1 훌륭한 연주가이자 프로듀서였던 동시에 미국의 흑인사회와 빈민층을 대변하는 사회운동가였던 제임스 브라운. 2 Red 'sex' Jumpsuit, A red wool jumpsuit with rhinestone embellishments, J embroidered along the collar and SEX along the mid-section, 5000~7000달러. 3 Tan and brown Jumpsuit, A tan and brown jumpsuit with rhinestone and bead embellishments and Designed Especially for James Brown by Tony Alamo of Nashville tag in the collar, 5000~7000달러.

제임스 브라운은 지난 반세기 동안 '소울 음악의 대부' 혹은 '펑크(Funk)의 선구자'라고 불리며 미국 음악계를 풍미했던 흑인 음악가로, 엘비스 프레슬리나 밥 딜런 등과 함께 오늘날에도 후배 뮤지션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예술가 중 하나다. 그는 천재적인 싱어송라이터였고 훌륭한 연주가이자 프로듀서였던 동시에 미국 흑인 사회와 빈민층을 대변하는 사회 운동가였다. 이처럼 제임스 브라운은 미국 음악계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하고 심오한 영향을 끼쳤기에 세계인의 가슴속에 잊혀지지 않는 전설적인 음악가가 됐다.

1950년대 초 음악 활동을 시작한 제임스 브라운은 라이브 연주에 두각을 드러냈고 클래식, R&B, 소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히트곡을 남겼는데, 〈Please Please Please, I Got You(I Feel Good)〉, 〈It's a Man's Man's Man's World, Say it Loud-I'm Black and I'm Proud, Sex Machine〉이 그것이다. 특히 그는 펑크와 힙합(Hip Hop) 장르의 초석을 마련한 뮤지션인 동시에 레게(Reggae)나 아프로 비트(Afro-beat) 같은 세계 음악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의 음악 스타일은 종종 후배 뮤지션들에 의해 모방되기도 했지만 결코 복제될 수 없는 아우라를 지니고 있었다.

이에 크리스티는 지난 7월 17일 뉴욕 경매장에서 제임스 브라운 컬렉션 (James Brown Collection) 경매를 개최했다. 그의 전설적인 삶과 역사적인 음악적 성취를 총망라한 이번 경매는 20세기 거성의 개인적인 면모와 살필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선사했다는 점에서 특별했다. 약 400여 점의 소장품을 선보였는데, 그의 집을 장식했던 가구 및 소품뿐만 아니라 개인 의상 및 무대 의상, 그가 사용했던 악기, 장신구, 상패까지 포함됐다.

이 중 주목할 만한 것으로 브라운이 받았던 수많은 상패들과 로큰롤 명예의

전당상(Rock and Roll Hall of Fame Award), 케네디 센터 영예상 (Kennedy Center Honors Award), 그래미상(Grammy Award)을 비롯, 소울 음악의 대부(Godfather of Soul)의 약자 GFOS가 새겨진 유명한 그의 데님 무대의상을 포함한 여러 유명한 의상들이 있다.

특히 GFOS가 새겨진 이 의상은 제임스 브라운이 자이르의 수도 킨샤사에서 무하마드 알리(Muhammad Ali)와 조지 포먼(George Foreman)의 대결과 함께했던 역사적인 콘서트에서 입었던 의상으로, 〈우리가 왕이었을 때(When We Were Kings)〉라는 수상 다큐멘터리에서도 볼 수 있다. 또한 그의 손때 묻은 흔적들을 볼 수 있는 물품으로는 그의 작은 그랜드 피아노 손으로 직접 쓴 악보와 가사, 선글라스, 벨트, 신발, 모자, 스카프와 보타이, 초상화와 사진들 그리고 그의 개인 레코드 소장품 등이 있다.

이번 크리스티 뉴욕에서 열렸던 제임스 브라운 경매는 전 세계인의 존경을 받았고 아직까지도 후배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 뮤지션의 사회적·개인적 면모를 살필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막을 내렸다. 📺